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39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를 방문하는 강행군의 일정을 마치고 지금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입니다. 부목사가 성도님과 함께 일본 각지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성도님을 방문하는 기획을 언제부터인가 「빨리 빨리 투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군마(群馬)라든가 사이타마(埼玉)라든가 토치기(栃木), 이바라기(茨城), 후쿠시마(福島)로 향하는 강행군의 방문일정을 처리하는(이른 아침에 나가 한 밤중에 돌아오는), 제가 생각해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주파하는 '죽음의 투어?'입니다.

제 체력으로는 도저히 흥내낼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시다만 이번의 미국 방문투어는 이 '빨리 빨리 투어'와도 같은 여행 일정을 거뜬히 소화해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LA 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집회모임 장소로 직행하고, 그 곳에서 또다시 시카고로 이동하는 중 Saddleback 교회에 들어서 밤 집회를 마친 직후에 그대로 차를 달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간신히 야간 비행기에 탑승하여 기내에서 3 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는 미명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6 시반부터 아침 식사를 겸한 집회로 향했습니다. 짧은 4 일 동안의 미국 체재일정 중에서 총 12 차례의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몇 몇의 면담이나 취재가 있었습니다.

큰 집회나 작은 모임 그리고 백인 집회나 일본인의 모임, 그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무사히 일정을 소화해내고 지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배후에서 기도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행도 지진 재해가 초래한 은혜의 만남이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 방미의 목적은 미국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직접 지진 재해의 증언을 함과 동시에 지진피해 체험을 집필한 '유랑의 교회'를 미국에서 출판하기 위한 협의와, 급히 건축하게 된 교회건축을 위한 지원을 의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야말로 급전직하 건축하게끔 전개된 것이었습니다만 건축 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의 서적 출판도 기독교 나라인 미국내 출판사가 일본 서적을 출판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연회도 일본에서 하는 것과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통역을 통해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두가 진행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 어느 길도 곤란이 가로막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장애를 넘어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각각의 과정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는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각각의 길에서 마치 퍼즐을 하나 하나 풀어 짜맞추듯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야 하겠지요. 그리고 보니 우리 집 손자도 집안에서 엄마의 뒤를 그 어디라도 따라가려는 듯이 엉금엉금 기며 열심히 엄마의 등을 쫓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마냥 이대로 괜찮겠는지요? 우리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있을까요? 이 정도의 속도로 계속 나아가도 괜찮겠는지요? 교회가 정말 건축되겠지요? 과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겠지요?’

아마도 우리들은 앞으로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며 전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미국 체재중 10 월 6 일에 “다음 달 5 일에 한국 두란노서원에서 한발 먼저 한국어번역판 『유랑의 교회』가 출판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시카고 디넬 출판사와 합의한 직후 차에 오르자마자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짠 무늬는 마치 그림 맞추기 같아서 우리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며 우왕좌왕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 적절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에 때때로 경탄과 경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예비하신 그 길에서 마음껏 즐겁게 춤을 춰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 절

10 월 8 일(토) 시카고의 귀국편 기내에서

사토 아키라(佐藤彰)